

다. 나는 이쪽의 물질이 소실된 후 저쪽의 물체는 곧 해방되며 석방되어 나간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쪽의 물체는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쪽의 물질은 저쪽에 대해 말하면 아주 진귀한 것이다. 이쪽의 물질은 연소를 거쳐 이미 변화가 발생했는데, 물질이 이쪽에 있을 때와는 이미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신이 지상에서 수련하여 한 줌의 흙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위에서는 모두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뜻이다. 남들은 극락세계는 어디나 모두 금이라고 한다. 그럼 당신이 극락세계로 가면 돌 하나, 먼지 한 알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럼 당신이 이 물질세계에서 그것을 좀 가지고 간다면 바로 극히 진귀한 것이다. 우리 사람은 한마디 말이 있는데, ‘흔치 않을수록 귀하고, 적을수록 기이하다.’는 말이다. 물론 실제로 꼭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곧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의 일체 물질 내원은 역시 이쪽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람이 특별히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 우주 중의 기제(機制)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진실로 이 표면으로 구성된 세계를 말하겠는

며 물질 과립, 입자가 더욱 클수록 그것의 공간 체적은 더욱 작으며 그것의 전체적인 공간 체적은 더욱 작다. 당신이 만일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그가 더욱 광활한 공간임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그 상태에 부합되어야만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이 사람의 사유, 사람의 개념, 사람이 현존 물질세계를 대하는 인식,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당신은 또 들어갈 수도 없다. 인류는 자신의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였다, 어떻게 발달하였다고 말하는데, 아주 가련하다! 그것은 분자라는 이 한 층 공간도 돌파하지 못했으며 다른 공간을 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득의양양해한다. 원자로 구성된 그 공간을 보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공간체계의 구획으로서, 원자와 원자핵 사이가 공간이며, 원자핵과 쿼크 사이가 공간인가 하면, 쿼크와 중성미자 사이도 역시 공간이다. 이 물질의 가장 본원(本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층이 있는지, 인류의 숫자, 부처가 말하는 겁(劫)의 숫자로도 계산할 수 없다.

인류가 진정으로 물질을 인식하려면 오로지 사람이 현존하는 이 사람의 지식 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영원히 이 우주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없으며 영원히 탐측할 수도 없다. 그러므
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우주는 영원한 수수께끼이다. 물
론 고급 생명이 영원히 모르고, 속인이 이 우주를 알 방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련자에게는 방법이
있다. — 오로지 당신이 수련하는 것이다. 인류의 기술수
단을 통하여 부처의 경지, 그렇게 큰 능력에 도달하려
하고, 것처럼 많은 층 공간 우주를 투철히 볼 수 있게
하려 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은 칠
정육육, 각종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처의 경지
에 도달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구대전(星球大戰),
우주대전이다. 하지만 신(神)은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지 않을 것인바, 인류의 과학이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면 인류로서는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도덕이 그렇게 높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인류의 문명은
곧 궤멸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사람 자신이 안 되고, 사람의 도덕이 따라 올라
가지 못해서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사람의 도덕이
따라간다면 바로 신(神)이므로, 사람의 수단으로 탐측
할 필요 없이 눈을 뜨고 쳐 보지만 하면 다 보인다. 우주
는 바로 이런 것으로, 당신이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당

성된 살(肉)의 조직과 표면 이내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우주 역시 이리하다. 물론 그것은 몹시 복잡
한 것이다.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 이 공간,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모두 입자로 구성된 것이
며 얼마나 큰 입자에서부터 얼마나 작은 입자가 있든지
간에 입자마다 모두 외각이 있다.

나는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외각을 말했다.
이런 외각은 비록 입자가 입자를 감싸고 입자가 입자를
감싸도 어떤 입자는 마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지구는
바로 중간 위치이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밖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왜 사람은 가장 밖에 있는가 하
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가장 밖에 속한다. 그것들은
가장 밖의 피각(皮殼)과 연계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
각(皮殼)은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이며 우주는 가장 큰
외각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이 가장 큰 외각과 연계
를 맺고 있다. 우리 이 인류 육체가 존재하는 공간 역시
이런 형식이다. 이 공간 중에는 이 공간의 특징이 있으
며 그것과 그 신(神)의 세계와 내가 이전에 말했던 그
공간은 뚜렷이 다르다. 우주 속의 모든 일체 물질의 내
원은 모두 이러한 공간에서부터 온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향을 피우는 문제를 물어 왔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표면적인 함의를 이 우주의 이치에 따라 말한다면, 안팎이 없는 것이며 또 인류가 인식하는 그런 크고 작은 개념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 사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오늘 이 ‘밖(外)’을 말하겠다. 무엇 때문에 인류는 가장 변두리이며 가장 외면(外面)이라고 하는가? 무슨 뜻인가? 바로 내가 이전에 말했던 이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은 마치 우리 오늘날 인류가 생존하는 이런 공간과 같으며 신(神)이 있는 공간과는 뚜렷이 다르다. 내가 이전에 말한 공간은 모두 더욱 미시적인 고에너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이 공간은 표면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이런 표면물질 속에 많고도 많은 부동한 원소, 부동한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 아주 특수한 표면 공간은 마치 우리 사람과도 같다. 당신 신체 속에 부동한 크기의 세포가 있는데 역시 입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세포 표면에는 모두 한 층의 껍질(皮)이 있다. 그럼 줄곧 우리 인체 표면 피부(皮)에 피부를 구성하는 입자의 껍질(皮)까지 인체의 표면 입자의 껍질은 사람표면의 살가죽(肉皮)을 구성하였다. 이 껍질은 극미시 하에서 그 역시 하나하나 극히 광활한 공간이다. 신체 속의 그 입자의 껍질로 구

신은 이 경지를 벗어나야 한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각기 다른 큰 입자로 구성된 세계이다. 사실 어찌 이런 것에만 그치겠는가. 바로 우리가 있는 분자 이 현존의 공간 중에 또 많고도 많은 공간이 있는데, 사람에게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분자로 구성된 가장 큰 층의 과립이 바로 우리 사람의 가장 표면으로 구성된 물질인데, 강(鋼)·철(鐵)·나무·사람의 신체·플라스틱·돌·흙 심지어 종이 등등 등등이다. 인류가 보는 이런 것은 가장 큰 층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가장 큰 층의 분자로 만들어진 것이며 능히 볼 수 있다. 만약 분자가 조성한 것이 가장 큰 층의 입자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층의 공간 입자라면 당신은 보아내지 못한다. 이 분자는 또 더욱 작은 한 층 입자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 분자 그가 조성한 가장 작은 입자와 가장 큰 입자의 표면 사이에는 많고도 많은 층의 공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한 분자로 구성된 크고 작은 입자의 존재가 이 대단히 복잡하고 부동(不同)한 분자 공간을 구성하였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이 사람, 그가 어찌 없어졌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났는가.’라고 말한다. 그의 신체가 모두 분자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과립이 대단히 세밀하다면(수

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그는 곧 이 공간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를 보지 못한 것이며 그가 갑자기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다.

방금 이 공간의 구조를 말했는데, 저번에 말한 것보다 좀 더 상세하다. 너무 많이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없으며 사람이 것처럼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을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탐측해 낼 수 없다. 지금의 인류 과학은 실질적으로 그릇된 기점(基點)에서 발전한 것이며 우주에 대한, 인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계에서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학을 아예 승인하지 않으며 그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 물론 속인은 모두 이렇게 배워 온 것이며 이처럼 많은 학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은 모두 각 학과 중에서 성취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점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당신들 인류의 인식은 항상 진상을 몹시 빗나가 있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영원히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지금의 과학은 바로 이렇다. 그것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를 만졌다면 그것은 과학이 이렇다고 말한다. 사실 그것은 진상(眞相) 전반을

구성되었으며 가장 큰 한 층 입자로 구성된,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층의 표면 물질이다. 그럼 분자, 그것은 또 이 가장 큰 분자 입자보다 약간 작은, 뒤에서부터 세어 제2층이 되는 입자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것은 또 뒤에서부터 세어 제3층 입자를 구성할 수 있는데, 모두 분자로 구성된 것이다. 분자는 부동한 크기의 입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는 또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또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 층 공간 속에 그것은 또 종향(縱向)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부동한 층차의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부동한 층차의 마치 그 종교가 인식한 얼마나 많은 층천(層天)이라는 이러한 공간이다. 또한, 부동한 층차의 그 공간 중에는 또 부동한 단원 세계(單元世界)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것이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한 가지 현상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 이런 공간 외에 또 일종 조잡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가장 표면적인 공간이다. 나는 늘 여러분에게 말했다. 물론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가 『정진요지』 중에서 말한, “인류사회는 바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외층에 있으며 가장 표면에 있다.”라고

과한 것이나 당신들은 이미 불가사의하다고 여긴다. 사실 미래의 인류과학도 인식할 수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것처럼 높이 인식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한다 해도 이 한 층 입자는 이 넓은 우주 중에서 그것 역시 한 알의 먼지에 불과하며, 또한 한 알의 작고도 작은 먼지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 우주, 그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전에 줄곧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간이다.

저번에 나는 또 이 공간의 구성을 말하였다. 그것은 이 원자와 분자 사이, 별과 분자 사이의 이런 공간 외에 한 층의 원자 입자는 또 부동한 크기의 입자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한 크기의 입자층 중에서 그것은 또 공간이다. 분자를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자와 원자 사이는 공간이다. 그럼 원자가 분자를 구성하려면 곧 상당히 많은 원자가 함께 배열되어야만 분자로 조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일 좀 적은 원자 입자로 조성된 이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는, 그것과 많은 원자 입자로 조성된 더욱 큰 입자 사이는 곧 또 한 층 공간이다. 내가 말했듯이 분자는 가장 표면적인 형상,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물체든지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강(鋼)·철(鐵)·물·공기·나무를 포함하며 우리 인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분자로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방금 이렇게 말했는가? 인류는 오늘날 사람의 발전이 진화(進化)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진화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수련계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짓밟고 있다고 보고, 사람이 자신과 원숭이를 연결하는 것을 보며 모두 아주 가소롭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전혀 진화해 온 것이 아니다. 다윈이 그의 진화론을 내놓을 때 허점투성이였는데, 가장 큰 결함은 바로 원숭이에서 진화하여 사람에 이르고, 고생물(古生物)에서 진화하여 근대 생물에 이르는 중간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 동물도 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 사람에게는 부동(不同)한 역사 시기에 부동한 생존 상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활환경은 모두 당시의 사람에 맞추어 생긴 것이다.

이 문제까지 말하게 되어 나는 또 현재 사람의 관념을 말하고자 한다. 도덕이 부패함에 따라 많은 관념에 모두 일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 많은 예언가도 말한 적이 있다. 특정한 때가 되면 사람의 차림새는 마치 요괴와도 같을 것이라고. 당신이 말해 보라. 그 머리칼을 붉게 염색하고 중간에 그렇게 한 가닥을 남겨 놓고는 양쪽을 모두 뽁뽁 깎아버렸다. 특정한 시기에 이르면 사람은 개만

도 못하다. 많은 사람이 개를 아들로, 자식으로 간주하여 그것에게 우유를 먹이고 옷을 입히는데, 모두 고급이고 유명브랜드이며, 수레에 태워 밀고 다니면서 그것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거리에는 거지가 많은데,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는 미국에도 있다. 손을 내밀고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는 정말로 개만도 못하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만일 이 지구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중에는 비로소 만사만물이 있게 된 것이다. 일체 동물·생물·식물은 모두 사람을 위해 생겨났고 사람을 위해 없어지며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며 육도윤회 하며 전생하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지상의 일체는 모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이러한 관념이 모두 거꾸로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동물과 사람이 평등하다면 어찌 되겠는가?! 지금 동물이 인체에 달라붙어 사람의 주인이 되는데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어찌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가히 신(神)으로 수련 성취되고 부처로 수련 성취될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은 모두 고층차에서 내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은 대개가 모두 여기에서

입자 사이도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공간의 개념이다.

예전에는 말하기를, 줄곧 원자에서 분자 사이의 그것은 하나의 광활한 공간이며 우리 사람은 분자로 구성된 가장 큰 한 층 입자와 우리가 본 별, 이 층의 입자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람은 이 공간 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별 그것 역시 한 입자이다. 더 큰 데로 간다면 그 은하계, 그것 역시 외각(外殼)이 있는 것이다. 그 은하계와 무수한 은하계가 마찬가지로 우주 중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역시 연대(連帶)가 있다. 그렇다면 은하계 밖에 또 하나의 우주 범위가 있다. 그럼 이 우주의 범위, 그것은 한 층의 입자가 아닌가? 그것 역시 한 층의 입자이다. 이 우주는 그야말로 큰 것으로, 크기를 말할 방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주와도 같은 우주 삼천 개가 또 더욱 큰 한 층의 우주를 구성하였으며, 그 바깥에는 외각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또 더욱 큰 한 층의 우주 입자이다. 내가 방금 말한 입자는 한 점에서부터 전개한 것인데, 사실 매 한 층 입자는 모두 천체(天體) 전반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이것도 단지 두 층 우주에 불

내가 한 번 보았는데 역시 좋다고 느꼈고 여러 사람을 따라 연마하면서 절대 연공도 끊이지 않았다고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법을 배움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 우주는 이처럼 크며 구조 또한 이처럼 복잡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공간의 구성을 말한 적이 있다. 예컨대 물질은 분자와 더욱 미세적인 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 역시 이러한 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지금 과학이 인식하는 입자는 분자·원자·중성자·원자핵·전자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쿼크·중성미자가 있다. 더 아래로는 무엇인지 현재의 과학은 모른다. 그럼 내가 말한 것은 매 한 층의 이러한 입자가 존재하는 그 경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층차면(層次面)이라고 부른다. 사실 입자의 분포는 면이 아니며, 그 하나의 층차 중에 어느 곳이든 다 있는 것으로 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에게는 이 용어가 없으므로 그를 면이라고 부르자. 다만 이렇게 형용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경지 중에서, 그 한 층 입자의 경지 중에서 그것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다. 입자와 입자 사이는 공간이며 입자 자체의 속 또한 공간이다. 입자는 또 부동한 크기의 입자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같은 입자가 조성한 부동한 크기의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를 말했다.

내가 방금 말한 진화론은 우리가 보전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는 오랜 역사의 세월 중에서 여러 차례 부동한 시기의 문명을 거쳤다. 매번 인류 도덕이 부패하게 되면 그것의 문명은 곧 궤멸되며 최후에 극소수 사람이 살아남아 사전(史前)의 문화를 조금 계승했으며 다시 석기시대를 거쳐 발전해 왔다. 석기시대 역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석기시대가 있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일부 문제를 발견했는데, 고고학(考古)에서 발견한 많은 것이 다 한 시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의 사상으로 억지로 그 속에 썩운다면 그 는 현실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이 지구의 부동한 역사 시기의 사람이 부동한 시기의 문명을 남겨 놓았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현대인은 모두 이집트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지금의 이집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사람, 민족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조차 잘못 알고 있다. 피라미드와 이집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 사전의 그런 한 차례 문명 중에서 만든 것이며 나중에 한 차례 대륙판의 변경 중에서 그 피라미드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제2

차 문명이 나타나 새로운 대륙을 만들 때 그것은 또 물 밑에서 올라온 것이다. 그 한 무리의 사람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또 지금의 이집트 사람이 있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이런 공능을 발견한 후 일부 작은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 속에 관을 넣어두면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는 거기에 관을 놓았다. 새로 만든 것이 있고 옛적의 것이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사람 그 역시 도대체 어느 시기의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역사는 모두 뒤죽박죽이 되었다.

마야인(瑪雅人)의 문화를 많은 사람이 모두 지금의 멕시코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사실 멕시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들은 다만 스페인과 토착인(土著人)의 혼혈아이다. 마야문화는 지난번 문명 역사 시기의 것으로서 그 인류는 이미 멕시코에서 휩쓸려지고 오직 소수 사람만 도망쳐 벗어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 마야문화와 몽골인(蒙古人)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다. 인류는 그의 역사적 연원(淵源)을 모르고 있는데, 백인 역시 마찬가지다. 저번 한 차례 대홍수(大洪水) 중에, 저번 한 차례 인류 문명은 대홍수로 휩쓸려졌다. 지구 위의 해발 2,000m 이하 고산(高山)은 모두 침수되었으며 오직

기에 충분하다. 당신이 얼마만큼 높이 수련하려고 한다면 그 법, 그는 그만큼 큰 것으로서 이 법은 너무나도 박대(博大)하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나는 『전법륜(轉法輪)』 이 책에서 이미 말했다. 나는 말하기를, 그 속의 법리(法理)는 매우 박대(博大)하며 당신이 매 한 글자의 배후를 본다면 모두 층층 첩첩 무수한 불도신(佛道神)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매 한 층차에는 매 한 층의 이치가 있고, 매 한 층에는 매 한 층의 불(佛)·도(道)·신(神)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법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사실 나는 여전히 다만 그것을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했을 뿐이다. 진정한 이해는 당신이 착실하게 수련하는 중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으며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절대로 『전법륜(轉法輪)』 이 책을 보았고 동작도 알았으니 됐고, 좋은 줄 알았으니 연마하면 된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이 제고하려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 책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복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책을 보면 당신은 바로 인식하게 되고, 바로 제고하게 된다. 우리 원만에 이르는 수단 — 연공을 보태면 당신은 끊임 없이 당신의 층차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3천6백 법문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서양 종교의 그런 신(神)의 수련방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8만 4천 법문 역시 다만 여래 이 층차에서 이 범위 중의 인식을 말한 것이다. 그럼 이 범위를 초월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수련방법이 있는지 모르고, 그는 얼마나 많은 부동(不同)한 여래불(如來佛)과 기타 증오(證悟)한 법리(法理)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말하자면, 불법은 망망대해로 형용해도 다 형용할 수 없다. 우주가 얼마만큼 크면 이 법도 그만큼 큰 것으로 이와 같은 개념이다.

나는 오늘 다만 사람의 언어로, 오늘날 인류의 가장 알기 쉬운 통속적인 언어로, 개괄적으로 대단히 크고 대단히 높고 깊은 우주 전반의 이런 개황(概況)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정말 이 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법(法) 속에서 수련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체오(體悟)한 것의 높고 깊음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바,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은 차츰 체오(體悟)함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당신이 『전법륜(轉法輪)』을 읽으면 읽을수록 명백해짐이 더욱 많을 것이다. 당신의 근기가 아주 좋아 이 대법 중에서 수련한다면 정말로 수련하

2,000m 이상에 사는 사람만 살아남았다. 노아 방주(方舟)의 일은 정말이다. 서양문화는 이번 차례 대홍수로 완전히 휩쓸리었다. 동양문화 역시 휩쓸리었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과 곤륜산 일대 그 산 위에 살던 사람, 농촌 사람은 다행히 재난을 면했는데, 곤륜산 속에 살고 있던 중국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때에 동양문화는 아주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하도(河圖)·낙서(洛書)·역경(易經)·태극(太極)·팔괘(八卦) 등등을 계승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후세사람 누구누구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다시 고쳐 내놓은 것으로 전혀 그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모두 사전문화(史前文化)이다. 중국에 비록 이러한 것들이 남겨졌지만, 역사의 발전 중에서 이러한 것에 그친 것만이 아니다. 고대에 남겨 놓은 것이 더욱 많았으나 유전 중에 갈수록 적어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내포가 아주 깊으며 역사의 연원(淵源)이 아주 깊은 이런 민족인바, 바로 중국이다. 백인의 문화는 그 한 차례 대홍수에 전부 침수된 후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당시 유럽 대륙의 변두리에 또 한 대륙이 있었는데 역시 침수되었다. 가장 발달한 곳이었으나 침수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백인은 아무것도 없으며 어떠한 문명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발

전한 것으로서, 바로 그의 지금 이 과학이다.

중국의 옛 과학과 서양의 이 실증과학은 다르다. 많은 고고학자가 나와 이런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다. 나는 모두 그들에게 말해 주었으며 그들도 이런 문제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더욱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지금 많은 과학자 그들이 연구하는 기점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그가 이 한 영역 중에서 성과를 좀 올리면 그는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인식한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하나의 틀을 만든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유학생, 박사, 석사들의 사상은 개방적인 것으로서 당신들은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정의가, 그의 이 경지 범위 내에서는 맞지만, 당신이 일단 그의 인식을 벗어나고 그의 경지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릇된 것이며 사람을 속박하는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진정하게 성취가 있는 과학자라면 과감하게 이런 틀을 깨뜨릴 것이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하여 그가 인식한 이 경지에서 말한 것은 맞는 것이나, 이 경지를 벗어나면 그가 말한 것이 그릇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이치가 아닌가? 사람이 승화하여 올라갈 때, 당신의 사유상태가 높은 층의

고 파괴할 수 있다. 그는 믿지 않으므로 교란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을 크게 열어 놓았으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로지 당신이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책임진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불법(佛法)은 박대정심(博大精深)하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법은 불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전체 우주의 이런 법, 전체 우주의 이런 특성을 말한다. 이 방대한 우주, 그것은 매 한 층에 모두 우주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眞(眞)·善(善)·忍(忍)이 매 한 층 경지 중에서 체현되어 나오는 법리(法理)이다. 매 한 층차 중의 법리는 모두 매우 방대하며 매우 크고 복잡하다. 당신이 그 한 층의 이치를 똑똑히 말하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일생을 다 보내도 그것을 완전히 다 말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크고 복잡하다. 모두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는 여래 이 한 층차에서 사람과 그의 수련제자에게 설법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일생을 다 썼어도 다만 그의 그 한 문(門)의 것을 말했을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말하기를, 수련에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아직 도가(道家)를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 도가에서는 그들에게 역시

련하여 최대한 빨리 원만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어제 또 이런 문제를 말했다. 여러분은 아마 중국의 『서유기』를 알 것이다. 당승(唐僧)이 서천(西天)에 경을 얻으러 갔을 때 간난신고를 수없이 겪는데, 구구팔십일 난이었다. 한 가지 난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어 보충해야 했는데, 몹시 어려운 것이었다. 당신들이 오늘날 법을 얻음은 너무나도 쉽다.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비행기 표만 사면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이 법을 얻기는 확실히 아주 쉬우나, 수련하자면 그리 쉽지 않다. 나 역시 고려하였다.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 법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 시간을 마냥 길게 끌 수는 없다. 사람은 이 법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인식에서 아직도 재삼 사고하고 고려하면서 배울까 말까? 어쩔까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시간을 좀 다그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법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우리는 연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다그치면 아마 법을 얻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연장하면 아마 법을 얻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교란하

진리에 더욱 접근할수록, 더욱 높은 층에 접근할수록 낮은 층의 인식이 그릇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러하다.

사물에 대한 인류의 인식 그것은 그릇된 것이 아닌가? 사람은 현존의 가장 큰 층의 분자 입자로 구성된 표면물질과 별나라 사이의 공간 중에 서 있기에 그는 분간하지 못한다. 바로 이 속에서 그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것이 절대적인 과학이고 이것이 곧 물질에 대한 유일한 인식이며 이것이 곧 가장 선진적이라고 인식한다. 그것은 다만 이 방대하고 복잡한 우주공간 중에서 극히 작고도 작은 그런 미립자 중에서 물질세계를 인식함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작은 공간 속에 국한되어 있다. 내가 방금 말한 별의 구조, 그것 역시 한 체계인데, 당신은 작고도 작은 한 체계, 한 알 먼지와도 같은 체계 중에서, 무수한 억(億) 개의 공간 중에서 그런 한 점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바로 작고도 작은 한 공간 중에서 인식한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류의 과학 그것의 발전, 그것의 인식은 시작하는 기점부터 틀린 것이다. 인류의 기원, 생명을 말한다면 더욱 복잡한 것으로, 말하지 않겠다. 더 많이 말하자면 생명의 기원을 말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많이 말하고 높게 말하면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경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데 신(神)이 들으면 그는 믿는다. 그는 신(神)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그 경지 중에서 보며 그의 사유방법과 사람의 것은 전혀 같지 않다.

내가 방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하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자.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은 명백히 알아 들었는가? (박수) 나는 늘 한마디 말을 하는데, 어제 또 재삼 이 문제를 강조하였다. 바로 연분(緣份)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늘 이 대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소개해 주면 그는 즉시 아주 좋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는데, 이는 아마 연(緣)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육친을 포함하여, 당신이 그에게 소개해 주지만, 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 당신이 어떻게 말해도 그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와는 아마 연이 없다. 물론 이런 상태는 연(緣), 한 가지 형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의 오성(悟性)이 안 되거나 혹은 업력이 커서 조성된 것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법회설법

李洪志

(1997년 4월 6일)

우리는 얼마 전 뉴욕에서 만났는데 며칠 지나서 오늘 여기에서 또 만났다. 원래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주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한 것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최근에 말한 것을 당신이 자세히 되새겨 보면 당신은 아마 말한 것이 무척 높음을 느낄 것인데, 실은 본질을 말한 것이다. 원인인즉 바로 당신들의 문화지식이 높고, 게다가 일부분 사람은 나중에 법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법을 얻은 이 부분의 사람들은 제고가 아주 빠르기에 그들에 대한 요구 역시 높으며 층차의 제고 역시 빠르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좀 크며 곤란이 좀 많다고 여길 것인데, 시련이 좀 많은 것 같으나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이전에는 말한 적이 없었다. 수련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빨리 이 법을 모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최대한 빨리 수

나는 오늘 이 연(緣)에 대해서 말하겠다. 무엇이 연인가? 이전에도 나는 이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다. 수련계에서는 재삼 이 연분, 연분을 강조하는데, 이 연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수련계에서 말하는 연, 그것은 짧은 역사 시기에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의 일생을 초월하여 몇 생, 심지어 더욱 긴 시간을 초월한다. 이 연분,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끊어지지 않는가? 방금 내가 업을 갚는 문제를 말했는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했다. 한 생명을 볼 때 그 생명의 전체를 보아야 하며, 그의 일생만을 볼 수 없다. 마치 당신이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과 어제가 있는데, 당신이 어제는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그의 연은 아주 긴 시간에 관련된다. 좋은 것이 계승될 수 있듯이 나쁜 것 역시 계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관계 이것 역시 끊어지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말하는 연은 대다수가 이 친인의 연(親緣)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곧 부부의 연(緣)을 말한다. 이것을 비교적 많이 말한다. 사실 이 부부의 연도 나는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이 속인 중의 일을, 나는 연을 이야기하게 되어 그것을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흔히 대다수는 모두 이러하다. 즉, 이 사람이 전 한 세에 그 사람에게서 은덕을 입었는데, 보답할 바가 없었다. 전 한 세에 벼슬이 너무 작거나 몹시 가난할 수도 있다. 그는 그의 은혜를 아주 크게 입어 마음속으로 보답하려고 생각했다. 그것으로 부부의 연이 맺어질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 한 세(世)에 그를 애모(愛慕)하였으며, 두 사람이 서로 애모하였으나 그런 연이 없어 한집안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면 곧 다음 한 세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망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뭘 가지려고 생각하고 당신이 뭘 하려고 생각하며, 당신이 나는 부처수련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부처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 일념(一念)이 너무나도 진귀한데, 이처럼 고생스러운 환경에서도 당신이 부처수련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이 마(魔)가 되려고 생각해도 역시 막지 못하는 것으로 그가 줄곧 나쁜 짓을 하는데, 당신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말해도 그것은 역시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소망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 밖에 또 무슨 친우라든가, 문하생이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와 원한(恩怨)으로 맺어진 이 연

舊金山法會講法

샌프란시스코법회설법

李洪志

1997년 4월 6일

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당신과 한 가정 혹은 한 군체(群體)를 이루게 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사회적인 연계를 이루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은혜와 원한을 되돌아 갚도록 한다. 이것이 모두 연이며 모두 이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일세에서 온 것이 아니며 몇 세 혹은 전 한 세(世)의 것으로 이것은 이런 상황을 가리킨다. 이런 하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이 이 일생 중에서 그의 은혜와 원한이 있고, 그의 친구가 있고, 그의 아내, 자식이 있는 등등 등등이다. 그럼 아마 이 한 군체는 곧 은혜와 원한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좋게 대하거나, 좋지 않게 대하거나 하여, 그는 그에게 되돌아 갚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곧 다음 일세(一世)의 군체적인 전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함께 오는 것이 아니며 여럿이 함께 전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올 때 빠르고 늦음이 같지 않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속에서 그는 일부 연계를 이루어 앞뒤로 전생해 오는 것이다. 한 군체가 아니거나 혹은 연이 없는 사람이거나 당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가도 마치 딴 세상 사람과 같으며 마치 그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당신도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마치 당신들은 두 갈래 길을 걷는 사람과도 같다. 이는 곧 당신, 이 군체에서 온 것이 아니며 그와는 어떠한 인연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흔히 전생하여 올 때에는 모두 한 군체이며 앞뒤로 부동한 시간에 오는 것이다. 부모가 되는 것도 있고 아들딸이 되는 것도 있으며 친구가 되는 것도 있고 원수가 되는 것도 있으며 은인이 되는 것도 있다. 내가 방금 말한 연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수련하는 사람도 이런 연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수련하면, 과거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수련하면 조상도 모두 덕을 쌓고 모두 이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수련하고 당신이 부처로 수련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업(罪業)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안 된다. 요컨대 당신이 수련할 때에, 당신이 이 일세에 법을 얻음을 알고, 당신의 친인이 당신 주위의 사람으로 전생한 것일 수 있으며, 은혜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수련은 육친의 정을 말하지 않는다. 육친의 정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곧 이 국한(局限)을

신이 말해 보라. 그가 극락세계로 가지 않겠는가? 무엇이든 다 내려놓았으며 그에게는 생사라는 이 개념이 아예 없다. 사람의 일념(一念)은 장기간의 수련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속인의 사상은 극히 복잡한 것으로서 어떤 마음이든 다 있는데 생사관두(生死關頭)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나는 대도(大道)는 극히 간단하고 극히 쉽다고 말했다. 많은 일이 아주 간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을 일단 분해하여 자세히 말하려면 곧 많고 많이 말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직접 당신에게 알려 준다면 당신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들 역시 것처럼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 모두 글자로부터, 표면으로부터 이해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설법해야 한다.

당신이 불호를 외우는 것은 또 부처에 대한 일종의 숭경(崇敬)이다. 당신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여 외운 것으로서, 물론 그 극락세계의 부처가 와서 당신을 책임지게 되는데, 당신이 부처수련을 하기 때문이다. 이 속의 내포는 아주 깊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음이 임박하여 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이 정말로 생사의 일념(一念)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정말로 갈 수 있다. 사람과 신(神)의 구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사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바로 신(神)이며 생사를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은 바로 사람이다. 바로 이 구별이다. 우리는 수련하고 수련하여 어떠한 집착도 다 내려놓는데, 그럼 그 생사마저도 모두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사람이 단번에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무엇에 집착하겠는가? 이미 법을 얻었다. 나는 생사마저도 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명(命)마저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또 집착하겠는가? 그것은 이런 이치이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여 겁이 나서 야단이다. “아이고, 나는 곧 죽게 되고 숨이 끊어지겠구나.”라고 한다. 그는 어떠한 심정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입으로 여전히 아미타불을 외우고 있는데, 당

타파하고 단독수련 혹은 단독으로 전하는데, 그는 자신이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정한다. 과거에는 역대로 모두 이렇게 수련하였다. 널리 제도함이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연이다. 내가 말한 이 연은 우리 이 좌석에 앉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당신은 연이 있어 법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속의 많은 사람이 법을 얻으러 왔고, 목적을 가지고 왔다. 친우나 각 대(各代) 제자로서 또는 다른 연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련은 속인의 정을 말하지 않으며 이런 것이 없다. 나는 늘 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법을 얻으러 왔다면 이전에 모두 이러한 소원을 품었을 것인즉, 자신이 와서 이 고생을 겪으며 이 법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늘 말한다. 일시적인 이 일세의 그릇된 관념으로 이번에 법을 얻음에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고. 그럼 당신은 후회해도 영원히 보완할 수 없다. 사실 내가 보견대 이 연분이란 기본적으로 이 갈래의 선이 아주 단단하게 매여 있다. 모두 떨어지지 않았고 모두 법을 얻었다. 다만 정진(精進)하는 정도가 같지 않을 뿐이다.

다음으로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려는데, 바로 이 수련형식이다. 어제도 내가 간단하게 이 한 점을 말

했기 때문이다. 우리 어떤 수련생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수련하려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부동한 견해가 있다. 우리 대법 수련 중에서 많고도 많은 제자가 이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다시피 내가 전한 이 법은 주로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하는 것이며 사람 자신의 主意識(주이스), 主元神(주웬선)을 제고함을 수련의 목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명 백백하게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당신이 당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분명하게 보면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법을 당신이 얻지 않고 누가 얻겠는가? 만약 정말로 산으로 들어가서 수련하여 이 모순을 비켜간다면, 수련이 느려지고,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 마음이 서서히 닳아 없어질 것인바, 그러면 이 법을 만날 수 없으므로 수련하는 것은 바로 副元神(푸웬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심산 속에서의 수련에는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가부좌·입정(入定)을 해야 하고 장기간 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신 자신이 수련했는지, 수련하지 못했는지 당신 자신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진정하게 이런 복잡한 환

고생을 좀 겪으면 나쁜 일이라고 여긴다. 사실 고생이 뭐 그리 두려울 것이 있는가?! 사람은 바로 좀 고생스러운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버틴다면 지난 후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지 않음을 볼 것이다. 나는 사람의 수련이란 곧 고생이 아니냐고 말했다.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보증하고 당신은 원만에 이를 수 있다. 더욱 높이 말한다면 당신이 그 생사지념(生死之念)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신(神)이다!

과거에 아미타불이 말하기를, 나의 불호(佛號)를 외우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어찌하여 가능한가? 그의 뜻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호(佛號)를 외움으로써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표면적으로 부처의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 불법은 부동한 층차의 내포가 있다. 당신이 그의 불호를 외움은 바로 연공으로서, 외워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미타불이란 이 몇 개 글자만 있을 뿐, 일념(一念)이 만념(萬念)을 대체한바, 사상이 전부 다 비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미타불만 있을 뿐이다. 염불할 때, 무수한 집착심과 각종 교란이 있는데, 당신은 버틸 수 있는가?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생각(心念)이 비워지면 이는 곧 수련의 목적에 도달한 것이다.

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편안하고도 편안한 일생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 이 일생에 병에 걸리지 않아도 백 년 후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산다는 것이 바로 업을 짓는 것으로, 당신은 업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한 말이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당신이 그에게 말하면 그는 개의치 않으나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 심지어는 길을 걸어도 당신은 생물을 밟아 죽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말한다.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신은 곧 업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업은 없애버릴 수 없다. 사람은 고통스럽게 병에 걸리는 속에서 정말로 당신의 업을 없애고 있다. 없애 버리면 곧 좋아질 수 있다. 흔히 큰 병에 한번 걸릴 경우, 한동안 지나 당신이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자신의 얼굴색이 불그스레하고 무슨 일이든 순조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업이 없어졌기에 그것이 곧 복분 즉 德(덕)으로 전화된 것이다. 당신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흔히 무슨 일을 해도 비교적 순조로우며 쉽게 성사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므로 사람이

경 중에서 제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하다. 출가한 사람도 主元神(주웬선)을 수련할 수 있지만, 속인 사회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연마(魔煉)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다.

예전에 우리가 들은 수련방법은, 역대로 어떤 종교거나 어떤 수련방법이거나, 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것은 모두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것을 말했다. 세상과 연을 단절하고 육친 정도 다 버리는 것으로, 부모가 절에 가서 육친을 찾는 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나는 너를 찾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 아미타불, 시주님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법명(法名)으로 고쳤기 때문이다. “나는 불문 제자이며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정말로 세상 연을 단절하였다. 지금의 화상(和尚)은 물론 그 역시 수련할 수 없는 것으로, 또 돈을 벌어서 집으로 부친다. 진짜 수련은 세상 연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화상(和尚)이 출가하기만 하면 사람으로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이치이다. 그는 이미 신(神)이며 절반은 신(神)이다. 지금은 비록 수련할 수 없게 되었지만, 흔히 많은 사람이 모두 이 옛적의 수련방법인

이런 형식의 장애를 모두 받고 있으며 역시 이런 방법을 채용하여 대법을 수련하려고 한다. 장래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법은 현재 오로지 이런 형식으로 수련할 수밖에 없으며 나, 이 사부도 역시 산속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수련하려고만 하면 늘 산속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수련하려고만 하면 곧 출가하려 하거나, 수련하려고만 하면 결혼하지 않으려 하거나, 수련하려고만 하면 속인의 상태를 개변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이 아니다. 수련방법은 아주 많은바, 8만 4천 법문 중에 다만 우리 이 법문만이 이렇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 몇 가지 수련방법과 전통적 관념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완전히 새롭고 진정하게 당신을 가장 빨리 제도되게 하는 이런 수련형식이다. 장래에는 장래의 수련방법이 있다. 사실 나는 책 속에서 “나는 사람이 수련하려 하지만, 어찌 말처럼 그리 쉽겠는가?!”라고 말했다. 수련하고 수련해도 실체는 당신이 아닌데,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오랜 과거에 많은 신이

하며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 정말로 당신의 心性(心性)으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는 것이지 물질 상으로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한 점을 과거의 전통 수련방법과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며 오히려 이 면에서 엄숙하게 검증할 것이다.

나는 이 수련인을 말하겠다. 우리 이 대법 중에서 수련함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길이다. 당신은 이러한 마음을 모두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장래에 전업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다만 사발 하나를 들고 동냥하며 행각하고 운유(雲遊)해야 한다. 세간의 고통을 겪을 대로 겪고서야 당신은 비로소 원만할 수 있다. 장래의 출가인은 이렇게 수련해야 한다.

고생을 말하게 되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사람이 수련할 때는 확실히 고생스러우며 고생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대법을 수련함은 역시 복이 있는 것이지만, 수련하자면 마난(魔難)이 있게 마련인데, 이 한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흔히 사람이 고통을 좀 당하고 고생을 좀 겪으면 그는 나쁜 일이라고 여긴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편한가, 저렇게 불편한가.”라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편안하고도 편안한 일생이라

(鉢)를 들었으나 지금은 경(磬)을 들고, 경을 하나 들고서 동냥한다. 당신이 그에게 밥을 주면 그는 아예 갖지 않으며 그는 돈을 달라고 한다. 물질 이익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추구하는 마음이 것처럼 강함이 수련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돈은 수련인에게 가장 큰 장애이다. 방금 말한 것은 출가인이다. 하지만 대법수련은 물건을 중시하지 않고 마음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속인 사회에서는 일을 하는 한편 수련하기 때문인데,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걱정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이 돈과 재산에 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신의 집을 금(金)으로 지었다 해도 당신의 사상에 없고 그것을 중하게 보지 않으면 된다.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에 어떤 직업이든 다 있는데, 장사하여 돈을 벌어도 마음에 어떤 영향이 없고 그것을 중하게 보지 않으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면 당신은 곧 이 한 관(關)을 넘긴 것이다. 당신의 집이 여전히 금으로 지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수련은 물질상으로 무엇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래야만 비로소 세간의 수련에 부합된다. 모두 수련하며 사람이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무엇을 먹겠는가? 이것은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중시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은 제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곧 副元神(푸웬선)을 제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사람을 제도하고는 아주 좋다고 느꼈고 그도 이렇게 제도함이 아주 좋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이렇게 제도함으로써 곧 이런 한 가지 인정받는, 사람을 제도하는 이런 한 가지 형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불공평했다. 이 사람이 수련했지만, 제도된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이 불공평하므로 그는 감히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으며 또한 감히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개변하여 당신 자신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시에 만약 사람이 이렇게 수련한다면 사회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당신 자신이 제고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람인 것으로, 이는 더없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이것을 바로잡아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어떤 신(神)은 그가 오랜 세월 속에서 역시 이렇게 수련하여 올라간 것으로, 副元神(푸웬선)을 수련하여 올라간 것과 같으므로 그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전함을 모두 가로막고 있다. 당

신들 모두 생각해 보라. 이 법을 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으며 얻기 역시 참으로 쉽지 않다. 최후에 여러 신(神)·불(佛)·도(道)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으며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을 보았고 지금은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애당초 중국에서 법을 전할 때에는 몹시 어려웠다. 물론 지금은 전하기가 비교적 쉽다. 더욱이 미국에 왔기에 당신들이 법을 듣기는 아주 쉬워졌다. 방금 나는 우리 이 수련형식이 과거 그 관념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곧 이렇게 수련하는 것임을 말했다. 물론 여러분, 이 한 무리 사람들의 수련이 끝난 다음, 장래에는 장래의 사람이 수련하는 상태가 있다. 장래의 사람은 이처럼 많은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특수한 역사 시기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전했다. 더 장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또 그에게 형상을 남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당신이 지금 녹음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은 장래에 모두 남길 수 없으며 모두 지워버릴 것이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련할 때 제자들이 돈을 남기고 물건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이 물질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였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다 갖지 못하게 했으며 곧 가사(袈裟) 한 벌, 동냥하는 사발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많은 마음을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다. 어느 한 시기에 많은 사람이 이 동냥하는 사발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 사발은 동(銅)으로 만든 것이요, 내 이 사발은 옥으로 만든 것이요, 나의 이 사발은 보기가 좋소, 나의 이 사발은 은(銀)으로 만든 것이요.”라고 하였다. 어떤 화상(和尚)은 사발을 많이 모았다. 석가모니 부처가 말했다.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집에는 무엇이든 다 있으니 가서 모으고, 가서 보존하도록 하라. 왜 동냥하는 사발조차 내려놓지 못하는가? 출가인은 무엇이든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왜 동냥 사발을 보존하려는 이 일념조차도 버리지 못하는가. 재보(財寶)가 없으니 사발마저도 집착하는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이 뜻은 바로 이 일념, 조그마한 집착마저도 그에게 남겨둘 수 없으며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으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도록 한 것이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 시대에 화상(和尚)의 그 사발은 아주 작아 다만 한 끼의 밥만 빌 수 있었다. 지금의 화상(和尚)은 그렇게 큰 것을 들고 있다. 과거에는 바리